

# 유통구조 개선위해 지역조직이 활성화돼야



김 중 설  
영양농장, 전북육계분과위원장

배합사료 가격이 10% 인상이 되면 육계 kg당 생산비가 50원이 높아지고 그 여파로 병아리 생산비도 오르게 되고 기타 상승요인으로 실제 생산비는 크게 높아져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사료값 인상으로 육계 업계와 가장 미묘한 관계가 되는 것이 부화종계업인데 단기적으로는 병아리값의 폭락이 예상되며 육계농가에서는 입추거부가 일어나서 일시적인 병아리 홍수상태로 인한 추대 하락으로 생산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 육계경기는 의외의 호황을 이루게 된다.

사료가격인상에 따른 생산비 변화

구 분	88.4월말	대비10%인상	대비20%인상
하이생산비	788	834	884

금년 미국의 최대 곡창지대인 중서부지방에 가뭄과 이상기후로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불급한 옥수수 등 사료곡물의 수확량 감소가 예상되어 벌써부터 국제곡물가가 하늘을 찌를 듯이 치솟고 있어 그 여파가 국내의 배합사료가격에 영향을 미쳐 7월에 10% 내외가 인상되었고 10월, 12월을 즈음하여 계속 인상되리라는 예상속에 우리 육계업계는 물론 전축산업계에 비상이 걸려 있어 이에 육계업계의 당면문제와 금후 추이에 신속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곡물가격 인상후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국내 배합사료 가격인상, 육계 입식수수 감소, 병아리 생산감소, 닭고기 소비감소, 배합사료 생산량 감소 등 전 축산관련업계에 바로 파급되어 축산공황도 예상된다.

그러나 육계값이 좋은 관계로 입추열기가 살아나 병아리값도 나아져 그야말로 생산비가 큰폭으로 올라 불황을 맞게 되면 큰 피해를 입는 예를 지나간 사료값 인상후 항상 겪는 실례다. 그 이후 부화장과 육계농가는 서로가 자제를 하게 되어 큰 손실을 본 후 안정을 되찾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거울삼아 미리미리 양자가 공동 노력을 해야 되겠다.

우리 육계업자가 바라는 것은 병아리 가격의 안정이다. 병아리 가격이 들쭉날쭉하게 되면 생산비의 진폭이 커져 값이 오르면 세미출하가 어려워져 캔터키치킨용 수요의 위축이 나타나 닭고기 소비가 줄게 될 수도 있으며, 전체 육계물량은 크게 증가하여 육계값이 폭락하고 병아리값이 내리면 부화장의 병아리 감산으로 다시



육계값이 오르는 그런 악순환을 만드는 주범이 병아리 값이라는 것을 다같이 인식하고 육계농장에서 적정수수를 입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하나 큰문제는 소비위축이다.

소비자는 값이 싸면 많이 먹는 것이 비단 닭고기에서만 아니고 모든 상품에 적용된다. 생산비가 50원 오르면 소비자가격은 두세배 오르는 것이 1차상품의 상거래행위다. 소비자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위축되기 때문에 마리당 수익을 많이 올려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격 값싼 상품을 공급하는데 노력해야 하며 또한 생산원가 상승은 불가피한 현실에서 소비자에게 닭고기 가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시켜주어야 하겠다. 사람의 고정관념은 쉽게 버릴 수 없어 육계가격이 순간적으로 상승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보다 비쌀 경우는 발돌리는 경우가 많은 현실이다. 순간적인 소비감소는 불가피하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비자의 인식도 변화하여 오른 가격에 부담없이 사먹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연말경부터 사료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때부터는 지속적으로 몇달 동안은 입식을 자제하여 소비자의 인식을 바꾸는 데도 다 같이 노력해야 하겠다.

인상진폭은 키지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우리 생산자는 소비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절대 안정된 사업을 할 수 없으므로 생산원가 절감에 치중하여 값싼 상품을 공급하는데 더욱 노력을 해야겠다.

생산자가 항상 피해를 보고 제값을 못받는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해 우선 지역 조직이 활성화되어야겠다.

그러기 위해 지역계우회 내지 분회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공동체 의식을 심어줘 병아리 구입, 사료구입, 계산물판매에 있어서 모든 참여농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해야겠다. 병아리는 가급적 부화장과 직거래를 통해 우량한 초생추를 구입하여 사육해야 하고 판매 역시 신용있는 중간상인에게 적정중량에 적정가격으로 출하를 해야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사료값이 인상된다고 겁부터 먹고 위축될 것이 아니라 적정수수 사육으로 보다 안정될 수 있도록 적정가의 병아리구입, 질 좋은 사료구매, 방역위생 관리철저, 정확한 정보수집, 지역조직의 참여, 농장경영의 합리화로 내실을 갖추고 옛날과 같이 일확천금을 노리는 한탕주의를 철저히 배격할 때 보다 안정된 육계업이 정착될 것이라 믿는다. **양계**